

## 제2강 불교 세계관의 변화

(1교시)

### ◆대승불교와 인도 초기 세계관

※학습목표: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이전에 인도의 기초적 세계관을 알아본다. 이를 통해 대승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.

#### ▲인도 세계관의 변화

-불교는 인도 단일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인도 바깥으로 전파된다. 이 과정에서 인도와는 다른 세계관과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. 즉 대승불교로 변하는데, 대승불교의 문화적/사회적 기반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세계관의 변화이다.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불타관의 변화를 가져온다.

#### ▲불교 이전 인도의 세계관

-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윤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. 이 생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 그 이전, 이후의 연속적인 수레바퀴 속에 있다. 윤회의 굴레 속에 있다는 것이 인도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다.

-시간적 개념인 윤회뿐 아니라, 삼계(三界)의 세계관을 가졌다. 이 삼계의 구분은 purity의 정도를 드러낸다. 가장 아래로부터 욕계, 색계, 무색계다. 우주가 이 3구조로 되어있다고 생각했다.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옮겨 다니는 것이다.

-삼계는 모두 죽어서 윤회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, 살아서도 명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.

#### ▲욕계

-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.

-욕망이 모든 행위의 기본적인 동인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.

#### ▲색계

-색계부터는 의식의 세계라 보아도 좋다. 또한 인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는 윤회의 장소이기도 하다.

-색계의 '색'은 rūpa이다. 그런데 인도인들에게 rūpa는 형태를 가진 것을 뜻한다. 형태를 갖는 것은 반드시 색을 갖는다. 색이 없는 형태는 볼 수 없다. 그래서 인도인/불교에서 '색/형태/보는 것'은 같은 얘기다. 그래서 색계의 색은 형태가 있는 것, 색이 있는 것, 물질적인 것이다.

-색계는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다.

#### ▲무색계

-색계보다 하나 더 정화된 상급의 장소가 무색계이다. 무색계는 색조차 없는, 어떤 면에서는 순수 의식/정신의 세계다.

#### ▲삼계와 명상

- 명상의 깊이/단계에 따라 욕계, 색계, 무색계에 태어난다.
- 인간은 본래 욕계에서 태어나게 된다. 그런데 만약에 욕계에서 많은 선업을 쌓게 된다면, 상위의 계층으로 점점 올라간다. 그러나 여전히 깨달은 세계는 아니다. 전체의 세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. 삼계에 있는 한 윤회의 세계를 돌 수밖에 없다.
- 보통 삼계를 삼각형 도표로 그린다. 욕계로 내려올수록 고통이 커지고, 올라갈수록 행복이 늘어난다. 그런데 삼각형의 맨 위 꼭짓점에서도 고통이 아직 있다. 붓다는 그 꼭짓점마저 넘어서 열반에 이른다.
- 실제 명상은 색계 이상부터 시작한다. 욕계에 있는 한 아무리 마음을 집중시키고 앉아있다 하더라도, 거기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.

#### ▲삼계와 정신 수준

- 삼계가 윤회의 장소이기는 하지만, 우리의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정신적 수준을 뜻하기도 한다. 그래서 불경에 묘사되어있는 삼계는 굉장히 구조적이다.
- 색계의 예1: 색계에는 장미가 없다. 장미는 가시를 가지고, 가시는 미움을 상징한다. 미움은 욕망에서 출발한다. 즉 색계는 욕망이 상당히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미움이 없고, 미움을 상징하는 장미도 없다.
- 색계의 예2: 색계에도 남녀 구분이 있다. 그러나 gender만 있을 뿐 sex는 없다. 왜냐면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색계에서 남녀 구분되어 태어남은 sex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다(의생신意生身). 이때 의생신은 보살과 비슷하다. 보살은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난다.
- 무색계의 예: 무색계의 마지막 단계를 비상비비상처(非想非非想處)라고 한다. 이는 명상에서 느끼는 경험을 그대로 이름 붙인 것이다. 비상비비상처란 상(想)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이다. 여기서 상은 관념이다. 불교 이전에는 이곳을 최고의 경지로 생각했다.

(2교시)

## ◆대승불교의 세계관

※학습목표: 대승불교의 세계관을 살피고 특징을 더 자세히 본다.

### ▲대승불교의 세계관과 부처상

-원래 인도 불교에서 세계는 삼계가 전부이다. 그런데 불교가 인도 바깥과 접촉하면서 삼계가 여러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등장한다. 그리고 이 한 세계에 붓다가 하나씩 있다. 이런 생각은 다불을 생각하게 만들었다. 그리고 중생과 깨달은 자의 구분이 아니라, 스스로 깨달음을 늦추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새로운 존재(보살)가 생겨난다.

-원래 보살의 의미는 부처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. 그래서 대승불교인은 누구나 보살이라 할 수 있다. 다만 학문적으로 팔지 이상의 보살과 이하의 보살을 구분한다.

### ▲형상화와 보살

-대승불교에서는 부처뿐 아니라 보살도 많이 나타난다. 이 많은 보살들이 단순히 중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가 일어난다. 기능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서 개념적으로 특징/구분지어지고 동시에 형상화가 발달한다.

### ▲형상화와 관법

-형상화가 반드시 보살들의 기능적 분화과정에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. 대승불교에 와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수행법 중 하나가 관법(灌法)이다. 이는 visualization이다.

-관법은 소승불교에도 있었다. 소승불교의 대표적인 관법은 백골관이다. 이는 visualization을 통해서 삶의 무상을 깨닫는 것이다. 하지만 백골관은 negative한 쪽이었다.

-수양(修養)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. 나쁜 것을 닦아내는 측면(수)과 좋은 것을 길러가는 측면(양)이다. 굳이 수양을 놓고 보자면, 소승불교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수이고, 대승불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양이다.

### ▲대승적 관법의 등장 이유

-양적 visualization이 대승불교에 등장한 이유는 첫째 다불/다보살 개념이 생기면서 기능 분화가 일어나고,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다. 둘째, 무불시대라는 인식이다.

-무불시대: 붓다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열반했다. 그래서 남은 것은 그의 가르침뿐이다. 즉 그의 가르침에 따라가지만, 더 이상 붓다와 우리는 관련이 없다. 여기서 오는 절망감이 있었다. 그런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무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. 그러면서 불상을 제작하게 된다. 이는 다불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.

### ▲형상화와 문화적 배경

-불상 등장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보인다.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파된다. 맨 처음 불상이 발견된 곳이 간다라 지역이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.

-두 가지의 이미지 방식이 있다. 하나는 초상화 이미지고, 하나는 상징 이미지다. 동양의 이

미지는 기본적으로 상징 이미지다. 그런데 초상화 이미지에도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보인다.

#### ▲부처 형상화의 의미

-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붓다를 형상화하려는 노력이 증가한다.

-text를 읽고 듣는 것은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. 하지만 상(像)은 보는 순간에 전체가 들어오는 효과를 갖는다. 즉 한 권의 text가 그림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또 한 감동을 주는 효과도 있다.

#### ▲삼계는 붓다가 만들었는가?

-인도적 세계관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. 물론 가장 구체적으로 한 것은 불교에 와서이다. 삼계는 윤회의 장소이기 때문에, 윤회가 불교 이전에 주어진 하나의 문화적 조건이었듯이, 삼계도 결국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.

#### ▲색계는 관념의 세계인가?

-인도문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.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경험이다. 우리는 보통 존재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불교에서는 경험이 곧 존재다. 무색계에 있으면 무색계의 존재이고, 색계를 경험하고 있으면 색계의 존재가 된다. 즉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바로 내 존재이다.

#### ▲내가 살고 있는 세계도 여러 삼계인가?

-삼계의 체계는 욕망의 체계이다. 경험이 곧 존재라고 할 때는 삼계의 범주 내에서 경험이 곧 존재라는 것이다.

#### ▲색계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다른 존재가 되는가?

-그렇다. 그러나 색계를 가만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다. 색계에서 수행이 벌어진다.

-색계를 갔다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. 즉 색계의 존재가 되어야 색계를 간다.

#### ▲욕계에 있으면 욕계의 존재가 아닌가?

-물론 몸은 욕계에 있다. 그러나 그 존재는 그것과 달라진다.

#### ▲하나의 속성에서 다양한 속성으로 변한 것인가?

-그렇다. 우선 기능 분화가 있었다. 즉 기능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다른 붓다들이 등장한다.

-어떻게 다른가는 색신/보신/법신으로 나눌 수 있다. 색신이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처이고, 보신이란 visualization/관에서 등장하는 부처다. 관법의 테크닉에 따라 다른 부처가 등장한다. 결국 관법에 드러나는 부처가 보신이다. 법신은 하나의 우주적 몸이다. 작계는 내 마음, 크게는 우주 전체의 몸이다. 그래서 다불의 기능 분화와 지리적으로 나누어짐에도, 불교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一心으로 귀일된다.

#### ▲대승불교의 전개는 사교의 세련화인가?

-그렇게 이해하기 힘들다. 여전히 동남아 국가에서는 다불보다 일불이다. 즉 문화적 접촉에

의해서 다른 해석들이 등장한다.

(3교시)

◆불교적 세계 인식

※학습목표: 불교가 세계를 만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본다.

▲불교적 인식과 想

-우리의 의식은 불교적으로 볼 때,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. 어떤 것에서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무엇과 무엇의 사이로 규정된다.

-우리가 바깥 세계와 접하는 최초의 것이 수이다. 이는 active한 것이 아니라 automatic한 것이다. 즉 수는 automatic하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. 상(想)은 우리 의식단계로 넘기는 중간 단계다. 우리가 무엇을 있다는 판단은 이 다음 단계의 인식이다.

▲불교는 인간 없이도 존재하는가?

-인간 없이는 불교도 없다. 불교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산물이다.

▲사회를 떠난 불교가 없는가?

-하나의 원형으로의 불교는 없다. 붓다의 가르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. 이 가르침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, 완전히 그 지역에 동화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. 오히려 지역 불교 자체가 불교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.

-불교에서는 구체적인 개물/사건 각각을 떠나서 본체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. 깨달음도 한 인간 속에서 구현될 때 깨달음이지, 깨달음이란 하나의 추상적 세계는 없다.

▲강의실의 불교

-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불교는 문헌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성된 불교다. 다양한 전통의 흐름 속에서 공통의 요소가 있고, 흐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.

▲서양인들의 불교.

-대개 서양인들이 불교를 접할 때 결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.

-불교는 다른 종교와 결합이 잘 된다.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, 불교는 절대신/유일신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삶의 길이다.

▲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불교는 없는가?

-'어떠한 core가 있고, 그 core 속에서도 불교가 여러 모양으로 변해왔다. 그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essence가 있다'는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다. 하지만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. 그러한 essence가 없음이 가장 불교적이다.

-불교는 근본적인 substance/concept가 변한다고 본다.